

해남군, 산이·마산면 일대 900MW 태양광 단지 조성

2조2500억원 민간자본 투입...RE100 산단·AI 데이터센터 등 공급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 참여·이익 공유 방안 논의...이달중 주민설명회

해남군이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산단 전력공급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국가 관리 간척지인 산이면 덕호리·마산면 학의리 일대 461ha에 태양광 300MW, 산이면 부동리 일원 803ha에 태양광 600MW를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산이·마산면 지역에는 2조25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생산된 900MW의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에 공동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조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

유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와 ‘해남군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RE100 산업단지 연계를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주민 전체 의견을 모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발족한 해남군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사업명인 ‘해남군 산이 부동 햇살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운영규정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정기회의를 월 1회 개최기로 하면서 2차회의는 이달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6차례 회의가 진행된 ‘해남 산이·마

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할 ‘해남 산이·마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기로 했다.

해남군은 이달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해남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순명도 해남부군수는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창구”라면서 “사업보다 주민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세밀하게 듣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이익공유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연계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해남형 에너지 순환체계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는 지난 8일 회의를 갖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할 ‘해남 산이·마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해남군 제공>

영광군, 도움 필요한 군민에 먹거리·생필품 꾸러미

위기가구 발굴 ‘그냥드림’ 눈길
화·목요일 푸드마켓서 제공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 후 본사업

영광군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영광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 누구나 소득 심사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군푸드마켓’(영광읍 옥당로 149)에 마련된 그냥드림 코너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지만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생활고로 먹거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누구나 간단한 본인 확인 후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2회차 이용 시에는 복지 상담을 진행하며, 3회차 이후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추가 상담



‘영광군푸드마켓’(영광읍 옥당로 149)에 마련된 그냥드림 코너. <영광군 제공>

을 받아야 한다.

반복 방문자나 위기 징후가 있는 군민은 공적 급여 신청과 통합사례 관리 등 심층적 지원으로 연계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

을 넘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라며 “군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광군, 올 31개 스포츠대회 유치해 ‘경제 활력’

12만명 선수단·방문객 127억원 경제 파급효과

영광군이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러 넣었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총 31개 대회(전국단위 10개, 도 단위 7개, 군 단위 2개, 전지훈련 12개)가 지역에서 열렸다.

대회 개최로 12만여명의 선수단과 방문객을 유치해 12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고 군은 밝혔다.

기존 전국 중농구대회, 전국 종별농구대회 등 전국대회와 함께 전국 대학태권도대회, 전국 생활복싱대회 등 새롭게 유치한 종목대회 등 총 7개 종목, 10개 전국대회가 연중 개최됐다.

법성포 단오제 씨름대회,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전남도 대표선수 선발대회 등 7개 전남 단위 대회를 개최해 각 시군과의 체육교류를 확대했다.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5개의 전남도 체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역 22개 종목 동호인이 참여한 영광군 생활체육한마당과, 체조협회의 숙원이었던 생활체조·댄스페스티벌을 최초로 개최해 군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강화했다.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활용한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축구, 테니스, 검도, 농구 등 6개 종목에 걸쳐 총

12개 전지훈련을 열어 2만9천여명의 선수단이 지역에 머물렀다.

특히 배드민턴 국가대표 상비군의 전지훈련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광군은 내년에도 2월 전국 생활복싱대회, 3월 현장배 전국 오픈탁구대회, 4월 전국 중농구대회·대학태권도대회 등 굵직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내년에도 32개 이상의 스포츠대회 개최로 총 15만여명의 선수단과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스포츠 산업도시로 자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무안군 신청사 설계 당선작 ‘무안品경’

3읍 6면의 지역성 담아 배치...1000억 투입 2028년 개청 목표

무안군이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리가온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출품한 작품 ‘무안品경’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무안군 3읍 6면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건물과 외부공간의 각 요소로 치환해 지역성과 정체성을 품어내는 무안군 청사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본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840㎡ 규모로 지형의 흐름과 마을의 결을 따라 3품(品)의 질서가 배치되고, 그 사이에 무안의 바람과 하늘, 숲의 결이 담겨있는 여섯 뜰이 놓여있는 3품6정(三品六庭)의 배치계획으로 조성했다.

또 청사의 주요 기능은 품(품)의 형태를 가지는

3개의 동으로 구체화되고 분절된 사이 공간으로 관통되는 축을 따라 군민과 행정,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3개의 동, 3개의 기능으로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구현했다.

외부공간은 고유의 특성을 담은 6개의 뜰로 구성된다. 해제면 물의 뜰, 청계면 들의 뜰, 몽단면 나무의 뜰, 현경면 바람의 뜰, 운남면 햇살의 뜰, 망운면 하늘의 뜰이다.

무안군 신청사 건립에는 총 10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추진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신청사는 전남의 수도로서 서남권 대표 도시로의 기능과 최첨단 AI기술을 접목



무안군 신청사 공모 당선작 조감도.

한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행정문화공간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기자 노트

권력과 현실, 후자를 선택한 이 사람의 성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사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지방단체장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주민들이 혼란 속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10명 가까이가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으니 말이다. 군의 규모에 비해 많은 이들이 나서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지만, 마구잡이 출마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는 박우량 전 군수를 비롯해 9명으로 전국 최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민 모두에게 피선거권이 있으니 자의든 타의든 출마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나오고 보자’라는 식의 처사는 흥행보다는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우려가 앞선다. 자신이 진정한 수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진정으로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자신의 출마가 무한한 권력의 욕심인지,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서의 도전인지의 마음을 저울질과 잣대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지역민들의 안정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데 필요한 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누구를 막론하고 출마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출마를 선언해 선거 과정에서 온갖 애곡과 비방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마구잡이식 출마라는 선거판에서 지방단체장 출마를 접고 현직에 충실해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일구어나가는 데 전념하겠다는 출마를 접겠다는 광역의원이 있어 눈



이 상 선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 신안) 김문수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신안군수 출마를 선언했지만, 후보 난립의 난맥상을 보고 심사숙고한 끝에 출마를 포기했다. “과연 내가 주민의 주권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이 지역 중요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책임을 버리고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으로 농어민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성과를 내는 인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도의회 의정활동 과정에 아직도 농가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농어촌 실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제도적 개선,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핵심정책 추진에 맞춰서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잠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권력에 욕심을 부렸던 것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본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농어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을 것이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 컸겠지만, 그 정치적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김 의원의 뜻을 우후죽순 출마 속에서 우리 모두 한 번쯤 새겨볼 일이다.

/sslee@kwangju.co.kr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내년 4월 17~20일

군, 준비 착수...완성도 높이기 위해 총감독 인센티브 도입키로

진도군이 내년 4월 열리는 ‘제46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진도군은 최근 진행된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2026년 축제 일정 심의, 축제 추진 방향, 총감독 제 운영 방안 등 축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축제의 완성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감독 보상 체계(인센티브) 도입 ▲대표 프로그램 고도와 ▲먹거리·체험 활동 개발 ▲평일 관광객 유입 전략 마련 등 다양한 개선 방안

이 제시됐다. 특히 총감독은 축제 전반의 기획과 연출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 축제의 품질을 높이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제46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의 총감독 모집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행사를 구성해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정부 예산 25억 반영

영암군이 대불산단 등 지역 산업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은 최근 국회가 확정된 내년 정부 본예산에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비 126억원 중 25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은 내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영암군은 조선업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 등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해 체험교육 위주의 안전교육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3년부터 수차례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을 찾아 대불국가산업단지 안전체험교육장 설치를 건의해 전액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이 가까운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 시설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산업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